

2017년 3월 26일 “찾아오신 예수님(25) 표적에서 영광으로”(요 12:36~43)

<도입>

도올의 '기독교 성서의 이해' - 교안 아래에 간추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표적

표적의 사건들이 기록된 요한복음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1) 미래에 **완성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결핍, 즉, 질병, 가난, 소경 되는 것 같은 기능 저하, 현상세계에만 붙들리는 한계를 모두 다 극복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뜻합니다.

(2)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으로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20:31). (그리스도 = 인간의 곤경의 현실에까지 내려오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역할과 기능을 가진 분.)

이제 13 장부터 영광의 책으로 불리우는 후반부로 전환됩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에 임한 참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깨달음과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행하는 섬김과 몸으로 당하는 수난과 몸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37 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를**”,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들은 왜 믿지 못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 예수를 못 믿는 이유

먼저,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라는 인물을 보니까 믿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미 자기 안에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 종교 사상을 뒤집어 얹으면서까지 따라야 할 가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고 못 믿겠다고 말할 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 당황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들이 믿지 못함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38, 40 절.

38 절(사 53:1 인용)이사야가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종교의 성전 중심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과 주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노래 중에서도 53 장은 수난 받는 내용을 담은 절정입니다. 이런 모습의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전합니다.

40 절(사 6:10) 그들은 믿고 싶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면 사 6 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왕궁에 드나드는 특권층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느 날 성전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그 때 자신의 실체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6:5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화이신 왕을 보았음이라”

→ ‘부정’ 죄와 불의를 표현하는 이 단어의 두 가지 강한 측면을 소개하면, (1) 부정하면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일시적으로 쫓겨나가야 하는 정도의 심각함. (2) 나라와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숭배 수준(전염성).

이사야 자신은 종교적 권위와 지식과 영예를 겸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실체를 보았을 때 깨어졌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괴로운 것은 자신의 실체를 보았을 때입니다. 타인의 죄와 악은 눈의 티입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악이 작더라도 그것은 대들보입니다.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신의 실체를 만나는 사건이 바로 죄사함의 사건(하나님을 만나는)이 되었습니다(분리될 수 없음). 죄사함 받으면 말씀과 임재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인격적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간절해집니다. 주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 간절하면 은혜의 때가 임합니다.

40 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1) 이미 인간의 잘못된 선택 위에 변질된 상태임을 말합니다. 선택은 이미 나의 판단에서 나왔습니다(선악과). 그러면 이제 자기를 보지 않고는 고칠 수 없습니다. (2) 이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대해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은 열리지 않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43 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나 임재의 축복과 회개는 언제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합니다.

<맺음>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한 가지, 갈급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영광(기득권이 품은 권세와 영예와 지식)을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권면함으로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어떤 면이 믿어졌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2. 사도 요한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3. 내게 임했던 은혜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나의 실체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졌습니까? 이 경험이 있습니까?
4. 아래 김용옥 교수의 글을 읽고 이적(요한복음에서 표적)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정리되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참고 글>

도울 김용옥(한신 대학교 석좌 교수) “기독교 성서의 이해”에서 발췌.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과학적 해석을 나의 세계관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식적 전제하에서는 “예수”라는 사건은 끊임없이 불화와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중략. 기독교는 반드시 성서의 말씀의 진실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어떠한 자연주의적 해석도 차단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거룩하고도 진지한 성서주의의 출발이다.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성서로부터 온다는 철저한 성서주의의 입장은 교회가 구원의 주체라고 하는 통속적 결가지 사상을 배제시킨다. 인간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올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적에 관하여.

첫째, 예수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사이비 교주나 무모한 목사들이 따라할 수 있는 차원의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예수가 행한 기적은 하나님의 드러남이다. 그것은 예수라는

역사적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행하심이며, 예수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일 뿐이다.

둘째, 예수가 행하는 기적은 반드시 신앙이라는 사태와 결부되어 있다.

셋째,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을 입증하는 보편적 사태가 아니다. 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나의 실존적 믿음이라는 데에 더 강조점이 있다.

넷째, 예수가 행한 기적은 단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한 깨우침이나 협박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러한 기적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징표일 뿐이다.

다섯째, 기적은 인간 실존과 관계없는 초자연적 사태의 과시가 아니라 대부분 '질병의 고침'이나 '같이 나누어 먹음'과 같은 비근한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여섯째, 예수의 이적 행함은 제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마술과 같지 않은 것이다. 예수는 이적이 결코 우리에게 초자연적 사실로서 과시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신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역사였을 뿐이다. 예수의 관심이 만약 그러한 이적 과시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벌써 초장에 저등종교로서 윤락해 버렸을 것이다.